



그리스도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병원

- 가톨릭대학교 성모자애병원 -

찌는듯이 내리쬐는 햇살이 못마땅한지 하늘은 잔뜩 인상을 쓰고 있다. 하지만 잿빛 하늘과는 다르게 산들산들 시원스레 불어오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휘파람이 나오고 발걸음이 가벼워진다.

산들바람타고 한걸음에 달려간 곳은 '사랑의 돌봄으로 새생명의 희망을'이라는 슬로건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가톨릭대학교 성모자애병원(최선옥 병원장)이다.

성모자애병원은 1955년 전쟁 고아들을 보살피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내과, 외과를 비롯한 6개의 임상과에 41개의 병상 규모로 개원하였다. 이후, 임상과 증설과 시설 증축으로 1962년 가톨릭의과대학 부속병원에 편입됨으로써 종합병원의 면모를 갖추고, 현재 22개 임상과의 471병상 규모로 성장하여 인간 사랑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의료봉사에 전념을 다하고 있다.



철저한 안전순찰 및 점검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병원 만들기

일반 제조나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안전은 당연히 해야하고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병원같은 비제조업의 경우에는 위험요소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성모자애병원은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곳이니 만큼 안전관리나 사전 예방도 철저하다. 특히 올해로 개원 50주년을 맞은 이곳은 노후된 건물과 주사침 등으로 인한 감염 우려가 있어 이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오래된 건물은 환자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개·보수하고, 안전순찰 및 자체·정기점검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병원 만들기에 총력을 다한다.

특히, 개·보수 공사시 사전에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하여 만약을 대비하고,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것과 같이 공사가 안전하게 끝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한다.

확고한 안전마인드 형성을 위한 철저한 교육

과거보다 직원들의 안전마인드가 많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유동인구가 많고 비표준화된 작업이 많은 이곳은 안전 시설물보다는 직원들의 안전의식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어, 직원들의 교육에 특히 신경쓴다.



전체 교직원인 630여명되는 이곳은 신규직원 교육에 안전과 소방을 필히 포함시켜 이론적 지식의 확립과 소화기·전 등을 직접 사용케 하여 유사시를 대비하고, 그 후에도 정기 교육과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등을 통해 안전의식 확립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에는 의사나 간호사, 행정업무 담당 직원 등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그들이기에 사전 예방을 먼저 배우고 익히는 것이다.

특히,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사고의 대처나 대응능력이 부족하여, 직원 스스로 사고 발생시 환자들을 보호하고 대피시킬 수 있도록 비상훈련과 유사시 대처능력을 길러준다.

이외에도 업무 특성상 환자 및 보호자들과 같은 예측불가능한 부분까지도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보인다.


모든 작업의 표준화

설비적인 면에서는 모든 작업의 표준화를 지향한다.

안전작업표준을 작성하여 지침대로 업무에 임하고, 업무에 맞지 않는 것은 바로 바로 수정토록 한다. 뿐만 아니라, 비표준화되어 있는 작업이나 예측불가능한 부분도 큰 골격을 잡아 표준화하고, 그를 바탕으로 유동적인 부분을 가미하여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특히, 이곳 성모자애병원은 사고의 사전예방을 가장 중요시하기는 하지만, 사고 발생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염관리실을 통해 사전 검사 후 적절한 의료조치를 병행한다. 사고로 인한 즉각적인 치료로 사후 철저한 치료와 회복을 가능토록 한 것이다.

이 모든 활동과 함께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세세한 것까지 살피는 이곳 성모자애병원은 최선욱 병원장의 철저한 안전마인드와 경영방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병원, 고객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으로 더욱 확고히 자리매김 한다.

끊임 없는 의료활동과 봉사, 그리고 그를 뒷받침해주는 안전, 그 모두가 삼위일체되어 성모자애병원은 보다 앞장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한발짝 한발짝 도약하고 있다. 

〈성호연 기자〉